

## 백승수(BAEK Seungsoo)

1979년 부산 출생  
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및 거주 중



백승수 작가는 한국에서 꾸준한 작업 활동을 하다가 2006년부터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고, 파리1대학(팡테옹-소르본)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했다. 초기 작품은 주로 조각이었으며 최근에는 보다 본질적인 요소와 가치에 주목하면서 평면 위 색과 공간, 빛을 조각하는 작업에 천착 중이다. 작가는 작품의 주 재료인 98% 공기로 구성된 발포 폴리스타이렌(expanded polysterene, EPS)을 열선으로 절단한 후 캔버스 위에 올려 테두리를 혼합 매체로 마무리하거나, 절단면에 바로 색을 입힌 후 재접합하여 캔버스 위에 올리는 등 작업의 과정에 지속적인 변화를 둔다. 그러한 반복적인 태움의 행위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에고를 태워내고 비워내어 진정한 공(空)의 상태로써 실존 그 자체의 절정을 이루어 낸다. 그 지난한 노력의 과정만큼이나 차별화 된 기술적 완벽함의 극치가 돋보인다.

바스티유 디자인 센터, 프랑스 한국문화원, 로마 한국대사관, 파리국제예술공동체(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de Paris),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, 창원국제비엔날레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다. 2019년에는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공모전에 당선되어 프랑스 쉬프에 그의 조각 작품이 영구 설치되었다.